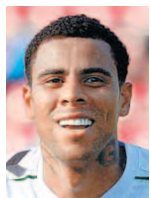


구스타보·백승호 골잔치 전복, 분위기가 살아났다

마음고생 털고 부활...리그·ACL 자신감 UP

전북 현대는 6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성남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5라운드 순연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뒀다. 정말 오랜만에 맞은 승리였다. 전복은 성남 원정 전까지 리그 7경기 무승(4무3패)의 늪에서 허덕였다. 최근 마지막 승리는 4월 18일 성남과 홈경기(1-0)였다. 9승6무3패, 승점 33을 획득한 전북은 2위로 도약하며 선두경쟁에 다시 뛰어 들었다.



구스타보



백승호

특히 반가운 소식은 '다용도 미드필더' 백승호의 K리그 데뷔골과 '삼바 킬러' 구스타보의 포스트리크(4골)이다. 올림픽대표팀에 차출됐던 백승호는 경기 하루 전(5일) 선수단에 합류했음에도 전반 15분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터트렸다. 도움닫기 없이 성남 골문에서 25m 떨어진 지역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볼이 그대로 꽂혔다. 세리머니는 요란하지 않았다. 불끈 주먹을 쥐고 열은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동료들은 달랐다. 쿠니모토와 모 바로우 등 외국인선수들까지 모두가 새내기 특성을 축하해줬다.

어려운 이적 과정을 거친 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 전북의 부진과 맞물려 비판도 많이 받았다. 침묵은 길지 않았다. 7번째 경기에서 마수같이 골로 꾸준히 신뢰해준 김상식 전북 감독에게 보답했다. 백승호는 "어릴 적부터 '실력'이 거품'이란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적응됐다.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담백한 소감을 전했다.

전복 벤치에 웃음을 안긴 이는 또 있다. 출전시간이 적어 활약이 미미했던 구스타보가 본격적으로 득점왕 레이스에 가세했다. 일류첸코(러시아)와 경쟁에서 밀려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그는 성남 원정을 앞두고 김 감독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다치지 않는 한 기회를 주겠다. 중도 교체도 없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다.

실력으로 보답했다. 구스타보는 4골을 몰아쳤다. K리그 1경기 4골은 2018년 8월 제리치(당시 강원FC) 이후 3년만이다. 득점 후 김 감독을 장난삼아 밀치는 세리머니로 가슴 속 응어리를 풀었다.

전복은 '승리 DNA'를 되찾아 분위기가 살아났다. 구스타보와 일류첸코가 이룬 투톱은 위력적이란 것이 새삼 확인됐다. 수비부담이 커도 화력 극대화란 측면에서 뚜렷한 공격 옵션을 찾았다.

전북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참가한다. 2016년 이후 5년만의 아시아 클럽 정상 탈환을 위한 여정을 앞두고 화끈한 동력을 얻었다. 남정현 기자

벤투호, 9일 월드컵 표 2차에선 스리랑카전 체크포인트

“독일파 3총사, 진짜 실력을 보여줘”

지친 이재성 아직은 임팩트 2% 부족
들쭉날쭉 출전 황희찬 리듬 찾아야
올림픽WC 노리는 권창훈 체력 속제



축구국가대표팀의 독일파 3총사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왼쪽부터)은 9일 스리랑카전을 통해 기량을 100% 보여줄겠다는 각오다. 황희찬은 경기감각, 이재성은 임팩트, 권창훈은 체력에 대한 의문 부호를 지우는 게 숙제다. 고양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황희찬(라이프치히), 이재성(홀슈타인 킬), 권창훈(수원 삼성·전 프라이부르크). 지난 시즌독일무대를 누빈 한국 축구 공격 3총사의 시선은 이제 스리랑카로 향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5차전에서 스리랑카와 격돌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을 5-0으로 대파하며 3승1무, 승점 10으로 조 선두를 굳게 지킨 한국은 남은 2경기에서도 화끈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다.

다득점 대승을 노리는 만큼 공격진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다소 미묘한 플레이를 펼친 이재성의 각오가 남다르다. 공격 2선의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해 중흥무진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강한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다.

물론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다. 스피드가 괜찮았고, 슈트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공격을 원활히 풀어나갔다. 측면을 흔들고 중앙으로 자주 침투해 상대 수비진을 끌

어내는 미끼 역할도 잘 수행했다. 다만 몸놀림이 다소 무거웠다.

어쩔 수 없다. 독일 분데스리가2(2부)에서 치열한 승격경쟁을 펼친 이재성이었다. 승강 플레이오프(PO)까지 거의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여파가 했다. 시즌 막바지인 5월은 체중이 4kg 넘게 빠질 만큼 혹독했다.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이재성 대신 투입된 황희찬도 100% 역량을 발휘하

지 못했다. 캡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와 함께 대표팀 공격 삼각편대의 한 축이지만, 뭉가를 보여주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지난 시즌 황희찬은 정신적 피로가 누적됐다. 오스트리아무대를 평정하고 처음 도전한 빅리그는 기쁨보다는 실망이 컸다. 분데스리가에서 1골도 뽑지 못한 채 도움 1개만 올렸고, 독일축구협회(DFB) 포카에선 3골·2도움에 그쳤다. 들

쭉날쭉한 출전 속에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벤투 감독이 후반 교체 카드로 활용한 것은 경기 리듬을 찾지 못한 황희찬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위해 프라이부르크와 계약을 종료하고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K리그1(1부) 수원으로 복귀한 권창훈은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1골·1도움을 올렸다. 오랜 기간 실전 공백이 있어 우려를 낳았으나, 큰 무리 없이 90분을 소화했다.

권창훈은 7월 개막할 도쿄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 출전을 노린다. 올림픽축구 대표팀 김학범 감독도 그를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이다. 다만 사흘 간격으로 1경기씩 치를 올림픽에선 체력이 아주 중요하다. 투르크메니스탄전 4일 후 스리랑카전이 열리는 만큼 타이트한 스케줄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눈도장을 받을 수 있다. 권창훈은 투르크메니스탄전을 마친 뒤 "많은 기회를 놓쳐 아쉬웠다"고 말했다.

다행히 모두가 부상이 없고, 컨디션 자체가 나쁘진 않다. 모처럼 대표팀 동료들과 만나 호흡을 맞추면서 궁정의 기운도 얻었다. 서로가 다른 입장이나 분명한 점은 스리랑카전을 맞이하는 각오가 단단하다는 사실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올림픽은 마지막 연령별 무대...역사 쓰고파”

김학범호 절친수비수 정태욱·이상민

“잘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약속
와일드카드 민재형 온다면 환영”



정태욱(왼쪽)과 이상민.

올림픽대표팀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절친' 정태욱(24·대구FC)과 이상민(23·서울이랜드)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둘은 7일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화상 인터뷰를 통해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강한 의욕과 함께 연령별 대회 유형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올림픽은 마지막 연령별 대회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마지막이라 더욱 특별하다. 둘 다 잘해서 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린 그렇게 약속도 했고, 잘하자고 서로 다짐도 했다”고 말했다.

다. 정태욱도 비장했다. 그는 “마지막 대회라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번 대회를 잘 준비해서 우리 실력을 보여준다면 결과도 자신 있다”고 밝혔다.

둘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호흡을 맞춘 중앙수비수 콤비다. 경기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하다. 둘 사이가 더욱 특별해진 계기가 있다. 2017년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잠비아와 경기할 때 정태욱이 상대 선수와 헤딩 경합 중 쓰러져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이상민이 기도에 달려 들어간 허를 빼낸 뒤 직접 인공호흡을 해주기도 했다.

올림픽대표팀 최종 엔트리(18명)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둘은 같은 꿈을 꾸다. 함께 도쿄로 가는 것이다.

이상민은 “18명 안에 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있다. (최종 명단에 든다면) 감독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어떤 위치에 있든 팀이 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겠다. 원하는 목표,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태욱도 “올림픽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와일드카드로 거론되는 중앙수비수 김민재(25·베이징 귀안)에 대한 속마음도 털어놓았다. 이상민은 “(김)민재 형이 온다면 팀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굉장히 큰 전력이다. 민재 형과 같이 훈련하고, 경기를 하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정태욱은 “투르크메니스탄전을 봤다. (김)민재 형이 다 막은 건 사실이다. 수비를 혼자 했다. 민재 형이 와일드카드로 온다면 좋은 전력일 것 같다”며 변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지금 전화 주문하시면, 만족하지 못해 반품하셔도 사용하신 **정품 150ml 1개**를 그냥드립니다.

신통크림 런칭기념 30일간 무료체험

(반품시 왕복 택배비 6천원만 본인부담, 체험시용분 1개는 무료증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20-p1-12-4

평생 고생하신 나이 드신 부모님께...

늘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 딸들

※ 온가족 함께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온몸에 발라주세요!

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



계좌 : 농협 1544-6907-08 / 예금주 : (주)건강100세

팔, 다리, 등, 허리, 무릎, 어깨, 손목, 발목, 팔꿈치, 발꿈치, 종아리, 허벅지, 목, 발라만 주세요

스포츠/골프/등산/낚시/자전거/운동전후

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 1통(150ml)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몸 어디든 발라주세요

신통크림 적당량을 골고루 문지르면 쉽게 스며들어 끈적이지 않습니다.

- 생체친화적 고기능 물질인 펩타이드가 6종
- MSM(식이유황) 성분이 아낌 없이...
- 캐비어 추출물

- 백련초 열매 추출물
- 녹차캐럴스배양 추출물
- 들깨오일 등 33가지 전 성분을 확인 비교해 보세요



신제품 출시기념 대파격 할인

1세트 5개월분(150mlX5통)+(1통 체험분) ~~165,000원~~ **49,800원**
무이자 6개월 / 신용카드 (1세트) 배송비: 3,000원 / (2세트)주문시: 무료배송
2세트 12개월분(150mlX12통)+(1통 체험분) ~~396,000원~~ **99,600원**

문의 ☎ 1661-0110